

'24년 1차 서울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4. 3.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2024년 제1차 서울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3. 26.(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11명

- 정영식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 권민혜 위원, 김명희 위원, 김범주 위원, 김유빈 위원, 이지은 위원, 최소영 위원, 디지털정책관(공동부위원장),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 배석 : 디지털수석, 콘텐츠담당관, 미래첨단교통과 자율주행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장, 디지털재단 스마트사업본부장, 안전담당부서 팀장 및 주무관 등 18명

◆ 회의안건

- (자문)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보고(디지털정책담당관)
- (보고) 2024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디지털정책담당관)
- (보고)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 (보고) 「서울 스마트 라이프 워크」 추진 계획(디지털정책담당관)
- (보고) 서울 자율주행 기반 구축 계획(미래첨단교통과)
- (보고) 수도권 생활이동(통근·통학인구) 데이터 개발·활용(빅데이터담당관)
- (보고)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콘텐츠담당관)

◆ 회의결과 : 불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진행위원 소개
- 참석위원 및 내부 참석자 소개

<○○○ 위원장>

- 인사말씀
- 공개 회의록 열람·서명 위원 2명 선출

<디지털정책담당관>

- (1호 안건)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보고
- (2호 안건) 2024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 위원장>

- 1호, 2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디지털정책담당관>

- 그동안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전산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했다면, 이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 교통안전, 도시행정, 환경에너지, 생활복지와 같은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 종합계획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위원>

- 외국 스마트시티 사례를 보면 도시 전반에서 CCTV, 각종 AI기술 및 센서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 내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각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총괄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데 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음.
- 작년 상암에서 XR 체험행사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음. XR이나 AI기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음. 시민이 경험하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신기술 체험센터나

체험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음.

<정보통신기획팀장>

- 서울시는 서울CCTV안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25개 자치구의 방범용 CCTV나 112, 119,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의 CCTV간의 기술적 연계와 고도화, CCTV를 활용한 안전서비스 개발 등의 방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디지털정책관>

-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과 재난안전 등의 분야가 스마트도시 쪽으로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스마트도시가 보다 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복지, 기후, 환경 모두를 관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하며, 과업 내에 반영하겠음.

<○○○ 위원장>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내에는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음.

<정보시스템담당관>

- (3호 안건)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

- (4호 안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워크」 워크 추진계획

<미래첨단교통과 자율주행팀장>

- (5호 안건) 서울 자율주행 기반 구축계획

<빅데이터담당관>

○ (6호 안건) 수도권 생활이동^(통근, 통학인구) 데이터 개발·활용

<콘텐츠담당관>

○ (7호 안건) 2024년 서울시 누리집(앱)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 위원>

○ AI기술을 시민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며, 시민들이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실제 AI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개발했으면 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 자격으로 미국 CES를 참관했음.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스마트라이프워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행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진 면이 있음. 보통 전시행사들은 1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5개월 전까지 임대부스를 홍보해서 입점할 기업을 모집 후 마지막에 본격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함. 스마트라이프워크는 브랜딩은 나왔지만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 브랜딩 작업과 그걸 연결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엑스 B홀, B2홀 1층과 C홀 3층의 동선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슬기롭게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유입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며, 이 전시를 명확하게 뚫어보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함.

○ 서울시가 야간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도이며,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강점을 가지려면, 어떤 경험을 할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 고령층,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을 위한 동행을 할 것인지, 노인 케어나 어린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할 것인지, 한강만 건너는 자율주행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함.

<○○○ 위원>

- 지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전략으로 수립되어 있고, 그 전략 하에서 21년, 22년, 23년 각 해의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전략과제와 성과목표가 수립되는데, 전략과제와 성과목표가 오늘 발표한 7개의 주요 추진성과와 잘 연계되지 않음.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전략과제, 성과목표와 추진성과가 잘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함.
-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에서 전략1은 안전성 가이드와 품질관리체계를 만드는 readiness 부분임. 전략2는 이용료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고, 전략3은 실국에서 AI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거버넌스를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디지털정책관이 AI 레디 프린시플, AI사업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사실 전략 1,2,3에 시큐리티 빼고는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준비해야 함.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략1 중 ‘총괄기능 정비 및 AI 안전성 가이드 마련 분야’를 보면, 윤리규정뿐만 아니라 안전성 가이드를 추진 중임. 특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보안에 대한 측면들까지도 안전성 가이드에 반영하겠음.

<○○○ 부위원장>

- 스마트도시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미래의 서울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야 되고 정보화 계획이 인프라로 들어가야 하니 스마트도시에 중점을 뒀어야 하는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지 혼동될 수 있음. ‘디지털’과 ‘도시계획’ 두 가지를 융합하여 서울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 시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목표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 인공지능 신기술을 수

단으로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키면 보다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는 선도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행정혁신을 가속하겠다는 추진계획안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음.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즉 ‘고객의 관점인 시민들에게 좋아지는 면’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을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편리함이 증대되는 부분을 설명안에 포함시키면 보다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위원>

- 지금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 배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부분들이 2년~3년 후에도 쓰일 기술인지’에 대해서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아주 초기 상태에 와있음. 서울시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공감될 수 있는 아젠다를 끌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정부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AI기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AI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다 환영받고 있는 기술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파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음.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함.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아젠다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잘 알게 해 주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함.

<○○○ 위원>

- 최근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규제기관에서 AI 투명성 요건(예, AI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AI인 것을 밝혀야 한다는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음.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관장하는 여러 법률에서 AI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음.

- 기업 중에서는 임직원이 AI 서비스 플랫폼 오픈 초기에 사내 회의록을 챗 gpt에 올려서 요약기능을 이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해서 우선 사용을 금지한 후 사내에서 운용되는 AI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 사례도 있음. AI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업무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소한 특정 내부 포털계정에 로그인해서 정보를 전송(프롬프트 작성)할 때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사항과 같은 경고메세지를 고지하는 방법 등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교통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mission critical)이므로, 일반적인 도심 속도인 시속 60km 수준에서의 기술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제한된 루트로 운행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또한 새벽운행으로 확대하는 것도 시민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됨.

<○○○ 위원>

- AI 분야는 사이버 침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안전 부분을 놓치면 안됨.
- 예산 중 CCTV 확대 추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혁신과 변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 바라봤음. 우선, AI 행정 추진계획 발표자료를 보면 AI기술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 분류를 전문가에게 확인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AI 행정 추진계획 내에 생성형 A, 특히 챗봇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분야 챗봇서비스 사업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으므로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함. 도로 내에 자율주행차들만 존재한다면 운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나, 인간 운전자는 개인에 따라 운전성향이 매우 다양함. 자율주행 관련 장기계획을 짤 때는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하는 운전자라는 요소까지 감안해서 자율주행차 1인칭 시점이 아닌, 도로 내 시스템에서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인터랙션을 모두 관제하는 데이터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람.

<복지기획관>

- 제가 담당하는 복지 쪽에도 노인이나 장애인 쪽으로 AI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음.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간다면, 실무적으로 기술에 대한 양극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보나 기술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업무를 계획하거나 이행했으면 좋겠음.

<교통기획관>

- 교통기획관은 디지털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임. 작년, 올해 자율주행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 UAM, 에어모빌리티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임팩트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되는 그 태그리스 결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 버스나 차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 사실 자율주행차의 속도가 한 50k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벽동행버스를 기획했고, 택시도 제한적으로 강남구 일원만 추진 중이며,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 고민할 계획임.
- UAM 분야도 최대한 준비해서 서울시민에게 먼저 보여드릴 예정임. 디지털정책관의 스마트워크라이프 관련해서도 모빌리티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발전, 흐름, 가치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서울시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에 대한 변화나 서비스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 오늘 내용적으로 계획에 대한 보고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구체적인 토론이 힘든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몫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조언을 실무에 반영했으면 바람.

<디지털정책관>

- 오늘 소중한 말씀들 무척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메모했고, 정책에 실현 가능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 2024년 제1차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서울스마트도시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